

문학 번역서 결텍스트 재정의와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주변텍스트 통시적 사례 연구*

이지민** · 한륜혜***

Jimin Lee and Ryoonye Han (2022), Defining the Paratext of Literary Translation and a Diachronic Case Study of the Peritexts of Korean Translations of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paratext of a literary translation and analyze the development of peritexts of Korean translations of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aratext of a literary translation be categorized into ‘translated peritext,’ ‘translated epitext,’ ‘translational peritext,’ and ‘translational epitext.’ As part of a case study, this paper selected two Korean translations of the novel, which were produced with an interval of over two decades - TT1 published in 1992 and TT2 in 2015. The two publications were compared in terms of their translated peritext and translational peritext. The study reveals that, regarding the translated peritext, TT1 attempted to follow the then general practice for literary books in Korea by deleting the tribute and adding a new preface and chapter titles. This practice changed with TT2, which was more faithful to the ST. With regard to the translational peritext, TT2 added a map, translator’s footnotes, and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uthor and the translator. This trend demonstrates the rising visibility of the translator as well as the author, in addition to increased efforts to ensure the reader’s ease of understanding with regard to the book’s cont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ranslation Studies in that it provides a clear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the paratext of literary translation and demonstrates its mechanisms through a case study. (Keimyung University, Korea)*

Keywords: literary translation, paratext, peritext, epitext, *To Kill a Mockingbird*

주제어: 문학번역, 결텍스트, 주변텍스트, 바깥텍스트, 앵무새 죽이기

* 논문 향상에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부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

***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박사수료, 제2저자

1. 서론

도서에서 본문(텍스트)을 제외한 저자명, 제목, 서문, 삽화 등은 텍스트라고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텍스트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를 곁텍스트(paratext)라고 부른다(Genette 1997: 1). 곁텍스트는 도서를 도서로서 독자와 대중에게 제시하는 수단이고(Genette 1991: 261), 독자들이 작품 세계 속으로 들어갈지 나올지를 결정하는 ‘문턱’(Genette 1991: 261; 1997: 2)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도서의 곁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서를 기준으로 한 주네트(Genette)의 정의만을 기반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번역학의 관점에서 번역본에 대한 곁텍스트의 정의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갬비어(Gambier 1994; 임순정 2010: 12 재인용)에 따르면, 재번역이란 ‘완역 또는 부분역되어 있는 텍스트를 동일한 도착어로 새롭게 번역하는 것’이다. 시대별 해외 작품 수용력 및 언어 규범의 변화 등 사회 제도나 출판 번역의 주체 및 저작권 등 출판 번역 체계와 같은 이유로 재번역이 시행되는데(임순정 2010), 이러한 재번역 양상은 곁텍스트에도 해당된다. 곁텍스트도 시기, 문화, 장르, 저자, 작품, 판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Genette 1997: 3). (재)번역물도 텍스트는 이제는 종래의 종이 인쇄물 형태를 넘어 eBook, 오디오북, 그래픽노블, 카툰 등 다양한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므로 번역본 곁텍스트의 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주네트의 곁텍스트 정의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번역학 논의의 출발점으로 번역서의 곁텍스트를 정의한 후, 이를 하퍼 리(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와 『앵무새 죽이기』 번역서에 적용해 곁텍스트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곁텍스트 정의

곁텍스트(paratext)는 텍스트를 물리적이고 물질적이며 판매, 배포, 독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도서의 형식, 제본뿐 아니라 텍스트를 도서로 만드는 과정

에서 텍스트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제목 페이지, 표지, 광고 홍보 등)를 포함한다(Bachelor 2018: 9). 겠텍스트는 ‘주변텍스트’(peritext)와 ‘바깥텍스트’(epitext)¹⁾로 구성된다. 도서 내에 있는 저자명, 제목, 소제목, 서문, 삽화, 헌사, 주석 등이 주변텍스트에 해당하고, 좀 더 도서 바깥의 범주에 있는 인터뷰, 대화, 신문, 라디오, 편지, 일기 등은 바깥텍스트에 해당한다(Genette 1997: 4-5). 겠텍스트 요소는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 화용적, 기능적으로 텍스트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겠텍스트 중 주변텍스트는 텍스트를 도서로 만드는 요소로서 세상에 텍스트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며(1), 텍스트를 제시하고 텍스트에 대해 해설하는 역할을 한다(345). 겠텍스트 중 주변텍스트는 표지, 저자명, 도서명, 속표지, 헌사, 작가 서문, 작품 해설, 작가 연보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표지는 앞표지와 뒷표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표지는 저자, 도서명, 삽화, 출판사명 및 출판사의 문장, 가격 등을 제시하며(24), 뒷표지는 저자명과 제목을 한 번 더 상기하며 인용문이나 논평, 시리즈나 도서 장르, 인쇄일자,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을 제시한다(25-26). 저자명은 홍보에도 활용되는데 저자의 명성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인쇄된다(39). 도서명은 거의 의무적이며 앞표지, 책등, 속표지, 뒷표지 등 여러 곳에 중복적으로 표기된다(65). 또한 출판 시기에 따라 미묘하게 변형되기도 하며, 주제 및 장르를 암시하고 나타내며, 독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76).

서문은 내용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나 의도를 제시하여(221)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이 적절하게 읽히도록 해 주는 것으로(197), 독자에게 작품의 기원, 시대상, 창작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210). 노발리스(Novalis)에 따르면, 서문에는 책을 읽는 방법이 나와 있으며, 저자가 원하는 독서 방식 및 적절한 독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시한다(209). 작가의 다음 신작을 안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220).

목차는 내부 제목, 즉 소제목이다. 도서명과 대조적으로 소제목은 이미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294). 목차 표기의 변천사를 보자면, 고전 도서가 숫자를 통해 본문의 구분을 나타냈다면 그 이후 명사절 형태를 거쳐(300), 더 짧고 명목상으로 두세 단어 혹은 한 단어로 표기되는 변화를 거쳤다(306).

바깥텍스트는 출판 후 인터뷰, 서신 또는 일기 등으로 주변텍스트와 비교해 공간적으로 텍스트 밖에 위치하는 요소에 해당한다(344). 인터뷰는 1884년 프랑스

1) epitext를 ‘후텍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나, 도서 발간 전 발생하는 텍스트(사전 홍보 등)도 있으므로 텍스트가 도서의 바깥에 존재한다는 의미에 충실해 ‘바깥텍스트’(박선희 2015)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일간지(Le Petit Journal)에 처음 소개된 이후 여러 세기를 거치며 필사의 형태에서 라디오 및 시청각 형태로 변화했다(359).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독자에게 진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359). 작가의 서신은 작품과 관련된 정도가 다양하나, 최종 독자에게는 곁텍스트의 효과를 발휘한다(373). 서신을 통해 작품 시대상, 창작 배경, 출판 배경, 독자와 비평가들의 평 등을 엿볼 수 있다(374). 일기는 ‘사적 바깥텍스트’(intimate epitext)라고 칭하며, 출판 의도와 상관없이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작품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언급한 메시지라고 정의한다(387). 주네트는 번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텍스트의 해설’로 정의하고 있다(405). 따라서 번역본을 바깥텍스트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1은 주네트의 곁텍스트 정의에 기반한 분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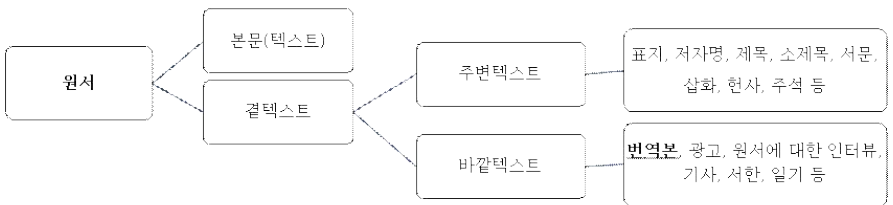


그림 1. 주네트의 곁텍스트 정의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번역을 단순히 원서의 주변적 후속 판본으로 인식하고 작가(authorship)로서의 번역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해 번역을 창조적 다시쓰기로 인식하는 번역학과는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Bachelor 2018: 23). 아울러 번역본을 원본에 종속적인 관계로 보는 관점은 번역학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Tahir-Gürçağlar 2011: 26). 따라서 번역학 관점에서 곁텍스트를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2.2. 번역서의 곁텍스트 정의

번역본을 원문의 해설서로 보아 곁텍스트로 간주하는 주네트의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다. 번역서도 문학 텍스트(본문)와 화용적인 곁텍스트로 구성되며, 번역가뿐 아니라 저자도 승인했다는 점에서 저자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Dueck 2014: 214-215; Bachelor 2018: 31 재인용). 아울러 주네트의 이러한 곁텍

스트 분류는 원서의 곁텍스트 문제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지 번역서의 경우에는 개념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지적(지영래와 박선희 2010: 248)도 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번역서 곁텍스트 연구의 경우에도 이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거나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곁텍스트’라고만 지칭하고 있다는 비판(박선희 2015:15)도 있다.

아울러 번역서의 경우 단순히 저자명 외에 번역가명이 추가되는 경우 말고도 번역가 서문, 번역 후기, 번역서에만 추가되는 작가 및 작품 소개 또는 작품 해설 등의 새로운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번역서에 새로이 추가되거나 변경, 삭제되는 페이지와 삽화는 원서의 주변텍스트와는 공간적, 시간적, 화용적(발신자/수신자)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원서의 주변텍스트는 번역과 편집을 거치면서 작가에서 번역가로 또는 번역가에서 편집자로 발신자가 변화하고, 수신자도 다른 언어권으로 바뀌는(박선희 2015) 특징을 갖게 된다.

원서에 대비된 번역서를 곁텍스트 차원에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번역서에서 어디까지를 본문(텍스트)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질문과 연결된다. 지영래와 박선희(2010: 252)는 원저자가 작성한 원문의 현사, 감사의 글 등은 번역 대상이므로 번역서에서는 본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제목, 작가명 등도 번역서의 본문이 되어버리고 번역서의 원제목, 원저자가 곁텍스트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박선희 2015: 2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신인을 명시함으로써 원서에 있는 곁텍스트는 저자 곁텍스트로, 이를 번역한 것은 번역가 곁텍스트로 정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박선희 2015: 26-27). 유사하게 원서의 본문 번역은 텍스트로, 작가, 편집자, 제 3자가 아닌 번역가가 작성한 부분은 ‘번역가 곁텍스트’(translatorial paratext)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 연구(Deane-Cox 2014: 29)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일부 ‘번역가 곁텍스트’로 보이는 곁텍스트의 경우도 사실상 번역가의 작업인지 편집자의 작업(또는 책임)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번역가가 작업한 것이라고 해도 편집자의 개입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곁텍스트를 번역가와 편집자 등의 발신자로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듀크(Dueck 2014; Batchelor 2018: 63-64 재인용)는 번역서의 곁텍스트를 번역가 주변텍스트(translatorial peritext), 번역된 주변텍스트(translated peritext), 번역가 바깥텍스트(translatorial epitext), 번역된 바깥텍스트(translated epitext)의 네 가지 범주를 제안한다. 여기서 ‘번역된’(translated)은 원서 곁텍스트 번역을 뜻하고, ‘번역

가’(translatorial)는 번역서에 들어가는 주변 텍스트를 포함한다. 여기서 ‘번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박선희(2020)나 딘 콕스(Deane-Cox 2014)와 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책임 여부를 번역가로 명확히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구자의 의도를 우선시해 명칭은 ‘번역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번역서의 텍스트와 곁텍스트를 정의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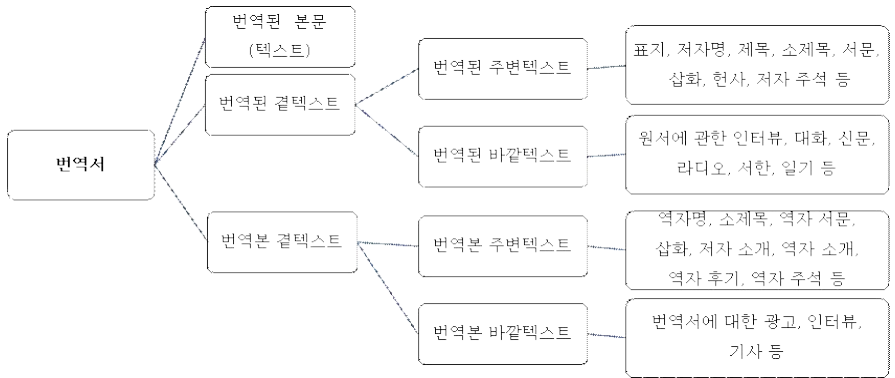


그림 2. 번역서의 곁텍스트 정의 제안

‘번역된 본문(텍스트)’과 ‘번역된 곁텍스트’는 원서에서 유래한다. 번역된 텍스트는 원서의 텍스트가 번역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번역된 곁텍스트는 원서의 곁텍스트가 번역된 것을 칭한다. 이 중 주변텍스트에는 번역된 저자명, 제목, 서문, 헌사뿐 아니라 저자 주석이 포함된다. 번역본 곁텍스트는 번역된 텍스트와 곁텍스트를 제외하고 번역서에 새로이 추가된 주변텍스트와 번역서에 대한 바깥텍스트를 포함한다. 번역본 주변텍스트에는 ‘번역서에 새로이 추가된’ 역자명이나 소제목, 번역가 서문, 저자 소개, 저자 약력, 역자 소개, 역자 후기, 역자 주석, 기타 삽화 등이 포함되고, 번역본 바깥텍스트는 번역서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나 기사, 광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원서를 기반으로 한 곁텍스트(번역된 주변텍스트와 번역된 바깥텍스트)와 번역서에서 추가된 새로운 곁텍스트(번역본 주변텍스트와 번역본 바깥텍스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원서의 발신자는 저자, 편집자, 제3자이고 수신자는 출발어 독자이며, 번역서 곁텍스트 발신자는 번역가, 편집자, 제3

자이고 수신자는 도착어 독자이다. 번역서라 해도 편집자 개입 정도에 따라 발신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들므로 이 분류를 통해 발신자 기반 분류(‘저자 결텍스트’, ‘번역가 결텍스트’)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 국내 번역서 주변텍스트 통시적 연구

위 분류 기준을 적용해 국내 번역서 결텍스트 중 주변텍스트 구성에 관한 통시적 연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김민서와 김순영(2019)은 『걸리버 여행기』의 원서와 번역서의 결텍스트를 비교했다. 본고의 기준을 적용하면 원서의 주변텍스트와 번역된 주변텍스트가 시대별로 어떻게 달리 재구성되어 작품이 해석되는지를 분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목, 저자명, 차례, 삽화, 발행자가 독자에게의 5개 항목에 대해 그 양상을 분석한 결과 시대에 따라 번역된 주변텍스트 요소가 적절히 추가되거나 삭제되고 있는데, 2000년 이후의 번역본에는 삽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최근 번역본일수록 원서의 주변텍스트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한편 다양한 번역본 주변텍스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비록 구체적인 용어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번역된 결텍스트와 번역본 결텍스트를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번역학 내에서의 결텍스트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결텍스트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지영래, 박선희(2010)는 『마담 보바리』의 한국어 번역본을 통해 1950년대부터 번역본 주변텍스트가 시대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연구했다. 1960년대에 사라졌던 역사 서문은 2000년대 출간본에서 다시 등장했으며(257), 1970년대에 인물 소개가 등장했다(257). 1990~2000년대부터 논술 문학의 등장으로 작품 해설과 율긴이의 말이 다시 등장해 전문 번역가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고 설명해(261-262) 번역본 주변텍스트가 독자의 번역본 선택 및 평가 기준 활용 및 문화사회학적 고찰의 중요한 지표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공시적 연구이기는 하나 김순미(2013)는 2000년대에 출간된 번역서 『위대한 개츠비』의 주변텍스트 분석을 통해 출판사의 도서 홍보 전략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 1970년부터 사라졌던 역사 서문 또는 역사 후기가 2000년대부터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를 단순히 결텍스트로 몽똥그려 설명한 기존 국내 연구와 차별되게 이 둘을 구분해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 모두 개별 도서 사례연구로서 주변텍스트 항목을 구석구석 조명하고 있고, 개별 연구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3.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To Kill a Mockingbird*(ST)와 한국어 번역서 『앵무새 죽이기』(TT)의 주변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ST는 1960년에 발간되었으며 발간된 이듬해에 풀리처상을 수상하고, 4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4천만 부 이상 판매고를 올렸다(브리태니커²⁾). 1930년대 미국 시골 마을 메이콤을 배경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흑인을 변호하는 사건을 어린 주인공인 스카웃(Scout)의 시선으로 그린 이야기다. 본 도서는 미국의 많은 도서관들에 소장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읽히며, 일반 독자들의 선호도 또한 높다(윤정옥 2014: 121-122). 1991년에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한혜원 2016. 2. 20). 또한 『타임』, 『가디언』, 『옵서버』, 『뉴스위크』, 『모던 라이브러리』 등에서 최고의 소설 100선에 선정되었으며(열린책들 서평), 1962년에는 영화로 제작되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고,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로 선정되기도 했다(박선옥 2018. 10. 10). 국내에서도 2003년 이후 30만 부가 판매되었다(황수현 2016. 2. 21). 아울러 해당 도서의 번역이 eBook, 오디오북, 그래픽노블, 만화의 다양한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므로 결텍스트 비교 분석 연구의 확장을 염두에 둔 연구의 출발점으로 본 도서가 적절하다 하겠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앵무새 죽이기』는 최초 완역본이 1992년에 출간된 이래 전자 출판물 4권을 포함하여 10권이 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초판 번역서와 가장 최근 출간된 번역서 한 권을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표 1. 연구 대상 도서

도서	출간연도	출판사	역자/번역가
ST	1982	Lippincott, Grand Central Publishing	Harper Lee
TT1	1992	한겨레	박경민
TT2	2015	열린책들	김옥동

2) <https://www.britannica.com/topic/To-Kill-a-Mockingbird>. 2022년 3월 15일 검색.

먼저 살펴볼 ST는 1982년에 출간된 도서다. 비교 대상 번역본 중 TT2는 1982년 출간 ST를 기반으로 한 것이 확인되나 TT1의 경우 어느 원본을 기준으로 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해 1982년 출간본만을 ST로 설정했다. 1960년 발간본과 비교해 결텍스트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연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번역서 TT1은 1992년에 도서출판 한겨레에서 발간한 도서다. 정식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고 출간한 도서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 번역가 박경민이 번역했다. TT2는 열린책들이 정식 저작권을 구매해 기존 도서의 오역을 바로잡아 김옥동 서강대 명예 교수가 번역한 도서다. 이들 도서는 23년의 간격을 두고 출간되어 통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도서를 대상으로 하여 원서와 비교해 번역서에서의 주변텍스트, 즉 번역된 주변텍스트와 번역본 주변텍스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4. 분석 결과

4.1. 번역된 주변텍스트: ST 충실성 강화

번역된 주변텍스트에서 ST와 TT 간 차이가 발견된 부분은 표지 이미지, 소제목, 작가 헌사, 작가 서문이다. 먼저 앞표지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TT1은 연한 살구색 바탕에 영어 원제가 삽화의 일부로 배경에 열게 표기되어 있으며 어린 소녀의 놀란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한국의 일반적인 도서 표지 디자인은 1988년~1999년 기간 동안에는 전문가의 손을 거친 독특한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의 색상 사용이 특징인데(남미현과 백진경 2004: 332), TT1도 이 특징을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TT2의 경우, ST의 디자인을 삽화와 타이포그래피 모두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TT1의 색감과는 달리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도서의 내용이 밝지만은 않음을 독자가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표지에 사용된 색깔은 그 책이 어떤 유형의 책인지를 보여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Genette 1997: 24; 김순영 2019: 238 재인용), TT2는 표지 색깔을 통해서도 작품 유형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있다 하겠다. TT1이 발간되던 당시에는

도서 표지 관행의 영향도 있지만 저작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ST의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림 3. 표지 이미지(좌로부터 ST, TT1, TT2)

소제목과 관련해, ST에는 각 장을 단순히 번호로 표시하고 있으나 TT1의 경우 ‘1 메이컴의 수수께끼’, ‘10 앵무새를 죽이는 일은 죄’ 등 총 31개 장에 대해 내용에 맞게 요약된 소제목을 삽입한 것이 관찰되었다. 1990년대에 출판된 다른 국내 창작 문학에 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번역본도 이러한 국내 창작문학 관행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TT2에는 이러한 소제목을 없애고 ST와 마찬가지로 번호만을 삽입해 ST에 충실한 번역을 수행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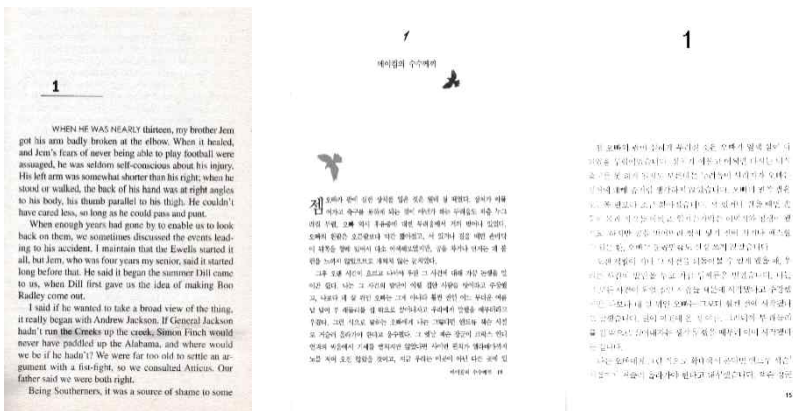


그림 4. 소제목(좌로부터 ST, TT1, TT2)

ST에는 작가 현사가 있으나 TT1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도 국내 창작문화도서의 관행을 따르며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현사는 TT2에는 포함되어 있다. 작가 서문의 경우 TT1이 출판되던 당시에는 ST에 작가 서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TT1에는 대신 번역가가 ‘옮긴이 서문’을 삽입해 작가와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ST의 현사는 삭제한 반면 ST에는 없는 서문을 TT1에서 굳이 만들어 넣었다는 점은 서문이 일반적인 도서 관행을 따르려는 출판사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TT1에서 장별 내용을 대표하는 소제목을 포함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편 TT2의 경우 ‘서문이 없는 것이 서문이다’라는 내용으로 작가 서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995년에 출간된 35주년 기념 에디션에 저자가 새로이 포함시킨 서문이다. TT2에서는 이를 포함해 구색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자면 번역된 주변텍스트의 경우 점차 ST에 충실하게 수행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할 수 있다.

4.2. 번역본 주변텍스트: 독자 이해 증진을 위한 내용 추가 및 작가·번역가 가시성 강화

ST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TT에 추가된 주변텍스트인 번역본 주변텍스트를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TT1에 비교해서 TT2에 절대적으로 많은 주변텍스트가 추가되었다.

표 2. 번역본 주변텍스트 비교

도서	지도	옮긴이 서문	도서명 설명	역자 주석	작품 해설	번역 전략 설명	작가 소개	작가 연보	번역가 소개
TT1	X	O	X	X	X	X	O (67단어)	X	O (12단어)
TT2	O	X	O	O	O	O	O (223단어)	O	O (65단어)

TT1에서는 옮긴이 서문, 작가 소개, 번역가 소개 정도가 새로이 추가되었으나 TT2에서는 지도 삽화, 도서명 설명, 작품 해설, 역자 주석, 번역 전략, 작가 소개, 작가 연보, 번역가 소개 등 다수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절대적인 양도 많은 편이다.

먼저 형태적으로 볼 때 TT1은 띠지나 재킷을 활용하지 않았으나 TT2에는 겉표지를 완전히 덮는 재킷³⁾ 형태의 띠지가 적용되어 있다. TT2의 띠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출판사가 띠지를 통해 도서를 홍보하는 경향(동아일보 2014. 6. 11)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띠지의 시작은 제1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은 한수산의 소설 『부초』로 알려져 있는데, 1977년 수상 이듬해 띠지를 둘렀다고 전한다(문화일보 2018. 7. 5). 2015년 10월 당시 베스트셀러 50위 도서 중 74%가 띠지를 둘렀음(김정현과 서혜옥 2015)을 감안할 때 TT2도 이러한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TT2는 이러한 자켓 안쪽면을 활용해 도서의 주무대가 되는 메이콤 마을의 지도를 삽입해(그림 5 참조) 독자가 도서에 쉽게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는 ST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한 배려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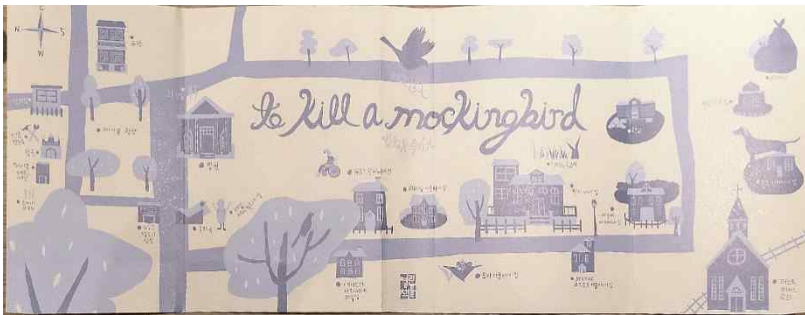


그림 5. TT2의 지도

아울러 TT1과는 달리 TT2에서는 총 58개에 이르는 역자 주석도 발견되었다. ST에는 작가 주석이 존재하지 않으나 TT2에서 역자가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해 추가했다. 본문의 ‘앤드류 잭슨’에 대해서는 ‘Andrew Jackson(1767~1845). 미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 오늘날의 민주당이 창당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로, ‘모빌’에 대해서는 ‘미국 앨라배마 주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등의 각주를 제시함으로써 ST와 TT의 수신자(독자)가 다르고 이들 독자 간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격차가 있음을 고려한 번역가가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해 친절하게 배경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TT1에는 “앵무새’는 기쁨과 양심의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4페이지 길이의 옮긴이 서문이 실려 있다. 번역가가 ST에 대해 느낀 감정, 1960년에 발간된 ST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출간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제목의 뜻과 작가 하퍼 리에

3) 재킷(jacket, book-jacket)은 표지위에 덧씌운, 보호 기능과 홍보 기능을 겸한 외피를 지칭하며 더스트커버(dust cover)라고도 불린다(김정현, 서혜옥 2015).

작가 소개도 TT1에 비해 TT2가 훨씬 상세하다. TT1의 경우 표지 안쪽 날개에 67단어의 작가 설명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TT2에는 223단어에 걸친 긴 작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TT1에는 작가의 학력과 도서에 관한 간단한 설명, 관심사만을 수록한 반면, TT2에는 작가의 성장 과정, 도서 소개, 수상, 도서의 위상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3페이지에 걸쳐 출생부터 타계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하퍼 리 연보도 수록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서에 대비한 번역서의 결텍스트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의 주변텍스트가 원서 대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1990년대 출간된 초판 번역서, 2015년 출간 번역서와 비교해 통시적으로 살펴해보았다.

기존에 사용되는 주네트의 결텍스트 정의는 원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번역 전체를 결텍스트로 보는 관점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서에 대비해 의미있는 번역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번역서의 결텍스트를 ‘번역된 결텍스트’와 ‘번역본 결텍스트’로 분류해 원서를 번역한 부분과 번역서에서 새로이 등장한 결텍스트를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이들 결텍스트도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로 구분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서와의 관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번역서 안과 밖, 번역서와 동시에 존재하거나 번역 전후에 존재하는 결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 중 주변텍스트를 대상으로 『앵무새 죽이기』의 원서와 번역본의 결텍스트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와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번역된 주변텍스트의 경우 1992년 출간된 번역본에 비해 2015년 출간서가 원서에 대한 충실성이 강화된 현상이 발견되었다. 1992년본은 원서의 현사를 삭제하고 번호로만 되어 있는 장별 소제목을 내용에 맞게 새로이 창조하는 등 당시 창작 문학 관행을 따르려는 노력을 보인 반면 2015년 출간본은 현사와 장별 소제목이 원서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아울러 표지의 경우에도 원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당시 국내에서 유행하던 표지 디자인을 따른 1992년본과는 달리 2015년본은 원서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번역본일수록 원서에

충실해지고 있다는 김민서와 김순영의 연구(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번역본 주변텍스트에서 독자 이해 지원을 위한 정보 추가가 관찰되었다. 자켓의 안쪽면을 활용해 도서의 배경이 되는 메이콤 마을의 지도를 제공하고, 총 58개의 역사 주석을 삽입함으로써 원서 독자와 시공간과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번역본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번역본 주변텍스트에서 번역가의 가시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1992년판에는 번역가의 흔적은 옮긴이 서문, 간단한 번역가 소개에만 그쳤으나 2015년판에는 제목 번역에 관한 설명, 작품 해설, 번역 전략, 역사 주석을 통해 번역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번역가 소개도 1992년본의 12단어에 비해 2015년본에는 65단어로 늘어나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번역가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으로 올수록 번역가의 가시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바뀐 번역 풍토가 작용함에 따라, 출판사에서 번역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주변텍스트 내용도 풍부해졌다는 연구(김순미 2013: 11)와 일치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번역가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2000년에 등장했다는 작품 해설(지영래와 박선희 2010)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작품 해설 작성이 번역가의 업무가 되었다는 점(McRae 2012: 17)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작품 해설 작성이 번역서의 관행이 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번역본 주변텍스트에서 작가에 대한 설명이 크게 증가했다. 1992년본에는 간단한 작가 소개만이 존재했으나 2015년본에는 작가 소개 분량은 4배가량 증가했고, 작가 연보까지 추가되어 작가의 위상을 강조하는 측면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종합하면, 번역서 『앵무새 죽이기』는 1990년대에는 주변텍스트 활용에 있어 대체로 창작문학 관행을 따랐으나,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번역가 소개 분량을 크게 늘리고 번역 전략 등의 주변텍스트를 포함하는 등 번역서임을 나타내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배경 마을 지도와 역사 주석을 제공해 독자의 작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즉, 주변텍스트 발신자 측면에서 번역가와 편집자 발신 분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번역가의 가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번역본 주변텍스트는 최근으로 올수록 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례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작품 해설, 번역 전략 설명, 구체적인 번역가 소개 등이 번역본 주변텍스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원서 곁텍스트와 차별되는 번역서 곁텍스트를 정의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번역서 주변텍스트의 변천을 살펴보았으나 단 두 권을 선정하여 살펴본 연구이고, 번역가와 작가가 둘 다 이미 유명인들이라 이들을 활용하려는 출판사의 홍보 의도가 감지되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23년 간격의 도서를 선정해 표지 디자인을 포함한 개별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와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앞으로 양적으로 확대된 연구를 통해 문학도서 곁텍스트의 시대별 변화를 더 세세하게 파악하고 eBook, 그래픽 노블 등의 도서뿐 아니라 영화, 게임, 웹툰 등에 대한 곁텍스트 정의 등 다중모드 곁텍스트로도 후속 연구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 김민서·김순영. (2019). 「『걸리버 여행기』의 결텍스트 연구」. 『번역학연구』 20(1): 267-269.
- 김정현·서혜옥. (2015). 「국내 북 커버 디자인에서의 띠지의 선호도 및 실증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4): 125-136.
- 김순미. (2013). 「결텍스트를 통한 출판사의 문학번역 전략 홍보: 『위대한 개츠비』번역방법 논란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1(3): 5-27.
- 김순미. (2014). 「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을 중심으로 본 역자후기의 내용과 기능」. 『번역학연구』 15(3): 33-81.
- 김순영. (2019). 「추리소설에서 결텍스트의 역할: 엘리리 퀴의 『X의 비극』 영한번역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3): 233-245.
- 남미현·백진경. (2004). 「책표지 디자인에서 시각적 요소가 독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 문학도서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17(1): 329-338.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결텍스트」. 『번역학연구』 16(1): 7-33.
- 윤정옥. (2014). 「‘한 권의 책’으로서 『앵무새 죽이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15-133.
- 지영래·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번역학연구』 11(3): 247-276.
- 임순정. (2010). 「고전 문학 작품의 재번역 상상」. 『번역학연구』 11(2): 127-149.
- Batchelor, K.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eane-Cox, S. (2014). *Retranslation: Translation, Literature and Reinterpretation*. London: Bloomsbury.
- Genette, G. (1991). Introduction to the Paratext. *New Literary History* 22(2): 261-272.
- Genette, G.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J. E. Lewin,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Rae, E. (2012). The Role of Translators' Prefaces to Contemporary Literary Translations into English: An Empirical Study. In Gil-Bardají, A., Orero, P. and S. Rovira-Esteva (eds.), *Translation Peripheries: Paratextual Elements in Translation*. Bern: Peter Lang, 63-82.
- Tahir-Gürçaglar, S. (2011). Paratexts. In Gambier, Y. and L.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2*. Amsterdam: John Benjamins, 113-116.
- [인터넷 자료]
- 동아일보. (2014). 책 표지를 감싸는 감성의 옷 ... 띠지가 크고 화려해졌어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611/64162638/1>(2022.1.20.검색).
- 문화일보. (2018). ‘띠지의 역사... 띠 지’ 띠지의 원조라 주장.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501032012000001>(2022.1.20.검색).
- 박선옥. (2018).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은 ‘앵무새 죽이기」.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8421 (2022.1.20.검색).
- 한혜원. (2016). 흑인차별 넘어... 모든 ‘앵무새 죽이기’에 맞선 작가 하퍼 리. <https://www.yna.co.kr/view/AKR20160220033151005?input=1195m>(2022.1.22.검색).
- 황수현. (2016). 美 인종차별 통해 인간의 편견을 고발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2211572109940>(2022.1.22.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15 April 2022; revised on 10 June 2022; and accepted on 20 June 2022.

Authors' email addresses

ke9836@hanmail.net

tmdvy5@hanmail.net

About the authors

Jimin Lee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Her areas of interest include literary translation and multimodal translation.

Ryoonhye Han (co-author) has completed her doctoral course at the Department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Keimyung University. Her areas of interest include literary translation and paratextual analysis.